

『奎章總目』저록 해제를 통한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An Evaluation of the Academic Levels of the Books through the Annotation Included in *Gyujang-chongmok*,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Books in Gyujanggak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
| 2. 「규장총목」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 3.1 저자 사항 |
| 2.1 내재적 가치 | 3.2 내용 사항 |
| 2.2 사상적 가치 | 3.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
| 2.3 서지적 가치 | 4. 결론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규장각의 중국본 서고인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서적에 대한 해제목록인 「규장총목(奎章總目)」의 각 저록에 부기된 해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수준 평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은 현대의 양서(良書)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要語: 개유와, 규장각, 규장총목, 서호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4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ademic values of the titles based upon book annotations included in *Gyujang-chongmok*, or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Books in Gaeyuwa, a library of Gyujanggak, Joseon Dynasty that held books printed in China. This paper examined various types of evaluative methods adopted in *Gyujang-chongmok*, and then compare them to the modern general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Analyzing the nature of the catalog and the particular historical situation, the academic qualities of books listed in *Gyujang-chongmok* are even more excellent than the modern criteria for good books.

Keywords: Gaeyuwa, Gyujanggak, *Gyujang-chongmok*, Seo Ho-su

1. 서론

「규장총목(奎章總目)」은 1781년(정조 5) 정조가 보만재 서명응(保晩齋 徐命膺, 1716-1787)에게 편찬하라고 명을 내렸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학산 서호수(鶴山 徐浩修, 1736-1799)가 그 해에 완성한 규장각 장서목록이다. 당시 편찬한 「규장총목」은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과 「서서서목(西序書目)」의 합본이었으나 이는 현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규장총목」은 장서각소장의 「열고관서목」과 서울대학교 소장의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이다. 이 중 1805년에 개정된 것으로 추정하는¹⁾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총목」은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중국서적목록²⁾을 작성한 사분법 해제목록인데 비해, 「열고관서목」과 「서서서목」은 서명, 권부수, 저자명만 표시한 간략목록으로서 해제가 붙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규장총목」의 각 저록에 부기된 해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목록의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현전하는 해제목록인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총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규장총목(奎章總目)」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리재철, 송일기, 정만조, 김희영, 정호훈, 리상용 등의 것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규장총목」의 분류체계, 서명응, 서호수, 서유구 부자의 목록편찬업적, 「규장총목」의 편찬과정, 수록 저록을 통해본 외래지식집성 등에 관한 것들이다.³⁾ 그러나 「규장총목」의 각 저록에

1) 정호훈,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57(2012. 3), 94-97.

2) 이 「규장총목」에는 중국인 저작 외에 한국인 저작과 일본인 저작도 수록되어 있다.

3)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研究,” 『성곡논총』 7(1976), 580-598.

송일기, “『奎章總目』考: 특히 徐命膺·徐浩修 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3).

鄭萬祚, “朝鮮 正祖代 奎章總目之編纂與其特徵,” 第十會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 『모산학보』 8(1996).

김희영, “서명응 삼대의 공구서 편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정호훈,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57(2012. 3), 91-125.

리상용, “『규장총목』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권1호(2013. 5), 377-388.

부기된 해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규장총목(奎章總目)』은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서적 697종에 대해 해제를 기술하였는데, 상당수의 해제에서 그 서적의 내용이나 저자에 대해 평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평가 내용은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 시대에 수입된 중국 서적들의 성격과 당시 선비들의 학문적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거기에 수록된 도서의 해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유취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규장총목』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규장총목』은 규장각(奎章閣)의 중국본 서고인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서적들을 대상으로 편찬한 해제목록이다. 당시 이들 서적은 대부분 조선시대 사신들의 연행(燕行)을 통해서 입수된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연행(燕行) 과정에서 중국본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는 『규장총목』이 편찬되기 전인 정조 2년(1778)에 당시 연행 사신으로 간 이덕무(李德懋)의 행적을 통해서 그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덕무(李德懋)는 1778년에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염조(沈念祖)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행(燕行)에 참가하였다. 그는 당시 연경(燕京)의 유명 서점인 고수당(晴秀堂), 문수당(文粹堂), 성경당(聖經堂) 등 여러 책방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살펴보고, 당시 조선에 없는 희귀서적 136종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희귀서적들을 탐독하고, 수십 종의 서적

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기균(紀均), 반정균(潘庭均),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⁴⁾ 이처럼 연경에 사신으로 간 이덕무는 그곳의 서점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보고 서적의 구입에 열을 올리며 그곳의 대학자들과 교류했던 것이다. 비단 이 같은 행태는 이덕무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풍부한 학식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조선의 연행 사신들이 연경에 가면 대개 유리창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구입하거나 열람하였으며, 그곳의 대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담론은 물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연행사신으로 다녀온 많은 학자들이 연행과정에서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많은 서적을 구입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이 자신의 집에 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해 온 중국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필자가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왕실도서관인 개유와에 입수된 중국 서적들은 당시 사행에 참여한 학자들이 사전에 구입할 목록을 근간으로 하거나, 소장 가치가 높을만한 서적을 실제로 보고 판단해서 구입한 것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규장총목』의 각 저록의 해제에서는 그 서적의 내용과 저자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규장총목』에 수록된 697종 도서의 해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은 대략 260여종(약 37%)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수록된 서적의 평가기준이 전체 609종 중 250여종(약 41%),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의 경우 전체 472종 260여종(약 55%), 『군서표기(群書標記)』의 경우 전체 155종 중 100여종(약 65%), 『누판고(鑿板考)』의 경우 전체 610종 중 240여종(약 40%)인데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규장각의 중국본서고인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서적의 입수 과정을 감안한다면, 비록 다른 목록에 비해 질적 수준 평가로 해석할만한 내용이 적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4)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6, 67, 入燕記 上, 下.

리상용,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46(2010. 9), 240-241, 257-261.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3) 서지적 가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내재적 가치

서적의 내재적 가치란 도서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 주제 분야의 서적 중에서 문장 또는 내용의 수준이 다른 서적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에는 1) 내용이 우수한 경우, 2)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한 경우, 3) 특정 서적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4) 저자의 인물을 중시한 경우, 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읽기 쉽게 편찬한 경우, 6)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7) 책의 장단점을 함께 논한 경우, 8) 책의 내용이나 저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내용이 우수한 경우

목록에 수록할 서적의 해제를 작성하면서 해당 도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냉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목록편찬자의 주요한 업무이다. 「규장총목」의 해제에서는 수록된 서적에 대해 질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내용이 훌륭한 서적에 대해서는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줌으로서 이용자에게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규장총목」의 해제 내용 가운데 각 주제 분야에서 서적의 내용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후한(後漢) 말부터 동진(東晉)까지 명사들의 일화들을 모아 놓은 「세설신어(世說新語)」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사손(高似孫)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의경(劉義慶)이 한진(漢晉) 이래 좋은 일과 미담을 뽑아내서 『세설신어』를 편찬했는데, 지극히 절묘하면서도 오히려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양(梁) 유효표(劉孝標)가 이 책을 주해했는데 원용한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해서 말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다. 호응린(胡應麟)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의경(劉義慶) 『세설(世說)』 10권. 그 글을 읽으면 진나라 사람의 면목과 기개와 운치가 황홀하게 생동하며, 간략하고 현담(玄澹)하여 지극함이 끝이 없으니 고금에 비할 데 없는 뛰어난 글이다. 유효표의 주(註)는 폭 넓고 풍요로우며, 자세히 조사하고 철저히 밝혀서, 원문과 주해가 광채가 나니 아울러 고금에 으뜸이다.(高似孫曰 義慶采擷漢晉以來 佳事佳話 爲世說新語 極爲精絕 而猶未爲奇也. 梁 劉孝標註此書 引援詳確 有不言之妙 胡應麟曰 劉義慶 世說十卷 讀其語言 晉人面目氣韻 恍忽生動 而簡約玄澹 眞致不窮 古今絕唱也 孝標之註 博瞻精覈 客主映發 並絕古今)”⁵⁾

이처럼 『세설신어』에 대해 고금에 비할 데 없는 뛰어난 서적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우공주의(于公奏議)』의 해제에서도 “그 말은 반드시 청취할 만하고 계책은 반드시 실행할 만 한 것이므로 군주가 밝게 알아야 할 표준적인 것”⁶⁾이라고 하여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좋은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명유학안(明儒學案)』의 해제에서도 “탕잠암(湯潛庵)이 책에 대해 한 시대 이학(理學)의 전(傳)이라고 칭송했는데, 대우(大禹)의 도산(導山) 도수(導水) 같은 것은 맥락이 분명하고, 공적과 문장과 경위가 밝게 빛나므로 유림(儒林)의 큰 바다와 같으며, 우리 당의 북두칠성과 같은 존재”⁷⁾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도가서적인 『금단정리대전(金丹正理大全)』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단정리대전(金丹正理大全)』은 말마다 도(道)를 밝히고 구절마다 기미를 드러냈다. 『용호경(龍虎經)』과 『참동계(參同契)』의 비밀을 파헤치고, 『음부경(陰符經)』과 『오진편(悟眞篇)』의 은미함을 밝혔으니, 진실로 수진(修真)의 모

5) 위의 책, 子部, 說家類.

6) 위의 책, 集部, 別集類.

“言必聽 計必行 納牖之準繩也.”

7) 위의 책, 子部, 儒家類.

“湯潛庵稱 其爲一代理學之傳 如大禹導山導水 脉絡分明 事功文章 經緯燦然 眞儒林之巨海 吾黨之斗杓也.”

범이다.(金丹正理大全 言言顯道 句句露機 剖龍虎參同之秘密 燭陰符悟眞之
隱微 誠修真之模範也)⁸⁾

이처럼 당시 이단시 했던 도가의 서적에 대해 유가적인 입장에서 해제를 기술
하지 않고 도가적인 입장에서 서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비록
『규장총목』의 범례에서 “도가(道家)와 석가(釋家)를 뒤쪽에 배열한 것은 이단
(異端)을 내쫓으려는 것”⁹⁾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도가 서적의 해제 내용을 보
면 『남화경부목(南華經副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수용적인 입
장에서 해제를 기술하였으며¹⁰⁾, 『규장총목』 석가류에 수록된 불교서적의 해제를
살펴보아도 불가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이 아닌 불서 자체를 중심으로 해제를
기술하였다.¹¹⁾ 이처럼 당시의 유가적인 관점에서 이단시했던 도가와 불가서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하하지 않고 해제의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성리정의(性理精義)』¹²⁾, 『금학정성
(琴學正聲)』¹³⁾, 『수리정온(數理精蘊)』¹⁴⁾ 등 여러 종이 있다.

이처럼 『규장총목』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그 내용이 우수한 경우 거기에

8) 위의 책, 子部, 道家類.

9) 위의 책, 凡例.

“道流釋氏之附後 黜異也.”

10) 이상용, “조선시대 해제목록에 나타난 도가서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권1호
(2013), 63-81.

11) 이상용, “『해동문헌총록』 불가서적(佛家書籍)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502.

12) 위의 책, 子部, 儒家類.

“康熙御序曰 前明纂修性理大全一書 取者太煩 類者居多 命太學士李光地詮擇進覽 授以意指
省其品目 撮其體要 使諸儒之闡發不雜於支蕪 復使學者之搜尋不苦於繁重 至於圖象律曆性
命理氣之源 前人所未暢發者 朕亦時以己意 折中其間云.”

13) 위의 책, 子部, 藝玩類.

“姚讓識曰 是編 自考器明度操縵指法審聲正謬 以迄製曲準繩運指精義 匯琴學之大成 發
聲理之玄奧.”

14) 위의 책, 子部, 曆籌類.

“眞數學之大成 曆家之津梁.”

결맞은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후학들이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1.2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한 경우

「규장총목」의 해제에서는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한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려 주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패문운부(佩文韻府)」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나라 강희연간(康熙年間)에 내각 학사 장옥서(張玉書), 이광지(李光地) 등에게 칙명을 내려 「운부군옥(韻府羣玉)」, 「오거운단(五車韻端)」 등 여러 책을 토대로 그 잘못된 사항을 고증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원본(原本), 증본(增本), 내본(內增), 외본(外增)을 편찬하였으니 무릇 106권이다. 고급을 포괄하고 거대함과 세밀함(鉅細)을 망라하였으니, 운학(韻學)의 성대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淸康熙時 勅內閣學士張玉書李光地等 取韻府羣玉五車韻端諸篇 證其訛舛 補其脫漏 爲原本 增本 內增 外增 凡一百六卷 囊括今古 網羅鉅細 韻學之盛 未有過於此)”¹⁵⁾

이처럼 청나라 때 편찬된 운서(韻書)적 유사(類書)인 「패문운부(佩文韻府)」의 해제에서 그 포괄 범위가 대단히 넓은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명나라 하당(何鏜)이 편찬한 「명산승개기(名山勝槩記)」의 해제에서도 “육조시대, 당나라, 송나라 이래로 여행과 연상(宴賞)과 관련된 저작을 수집하여 나열하지 않은 것이 없다”¹⁶⁾고 하고, 「만성통보(萬姓統譜)」의 해제에서도 “멀리는 상고시대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씨와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여 모으지 않은 것이 없다”¹⁷⁾고 하여 이들 서적에서 그 수록 범위가 넓고 풍부함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15) 위의 책, 經部, 小學類.

16) 위의 책, 史部, 地理類.

“明何鏜撰 慎蒙續 六朝唐宋以來 凡遊歷譙賞之作 無不搜羅.”

17) 위의 책, 史部, 譜系類.

“遠自上古 以迄皇明 凡係姓氏罔不萃聚.”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산당사고(山堂肆考)』¹⁸⁾, 『강희사전(康熙字典)』¹⁹⁾, 『역사(釋史)』²⁰⁾, 『무편(武編)』²¹⁾, 『본초강목(本草綱目)』²²⁾ 등 여러 종이 있다.

이처럼 『규장총목』에서는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한 내용에 대해 평가해 줌으로서, 후학들이 독서하는데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2.1.3 특정 서적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 유형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 독서를 할 경우 함께 읽어야 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서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홍간록(弘簡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경방(邵經邦)이 정초(鄭樵)의 『통지(通志)』에 수록된 내용이 당 이후가 빠졌으므로, 당, 오대에서 송, 요, 금나라까지 여러 역사들을 취해서 번잡한 곳은 삭제하고, 잘못된 곳은 정정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사가(史家)를 조사하여 빠지고 간략한 내용을 보충하여 『통지』의 뒤를 이었다.(經邦以鄭樵通志所載 唐以後則闕如也 起唐五代迄宋遼金 並取諸史 刪繁訂誤 仍采諸家 補其缺畧 以紹通志之後)”²³⁾

이처럼 『홍간록』의 해제에서 『통지』에서 수나라까지만 다루고 당나라 이후의 역사가 빠졌으므로 이를 보강했다는 평가를 내려주었다.

『오례통고(五禮通考)』의 해제에서도 “예전에 곤산(崑山) 대사구(大司寇) 서건학

18) 위의 책, 子部, 類事類.

“分宮商角徵羽五集 自天文地理人事 以至昆虫草木 採取古今傳紀 彙類發明 誠藝圃之名廚 文苑之捷徑.”

19) 위의 책, 經部, 小學類.

“義例較精 蒐羅彌廣 稱爲歷代字書之總匯 非夸辭也.”

20) 위의 책, 史部, 別史類.

“分五部 曰太古 曰三代 曰春秋 曰戰國 曰外錄 而篇首有世系圖及年表 蓋經傳子史文獻 攸存者 靡不採載 十二代之間 理亂分合之蹟 瞭然畢具.”

21) 위의 책, 子部, 兵家類.

“蒐輯古今兵家諸說 … 通古今 該細大 軍旅之事 亦云備矣.”

22) 위의 책, 子部, 醫家類.

“首以釋名 終以附方 凡氣味形色治法功用 無不備著.”

23) 위의 책, 史部, 別史類.

(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가 여러 예(禮)를 빠뜨리고 갖추지 못했으므로 진혜전(秦蕙田)이 분연히 뒤에서 일어나 오례(五禮)를 합해서 편찬한 것”²⁴⁾이라고 해제하여 이 책이 『독례통고』의 보충적인 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중만당시기(中晚唐詩紀)』의 해제에서도 “『당시기(唐詩紀)』에서 초당(初唐)과 성당(盛唐)만 수록하고, 중당(中唐)과 만당(晚唐)의 시는 수록하지 않아서 통행본(通行本)과 비본(秘本) 두 종류로 구분해서 육십여 사람의 것을 판각한 것”²⁵⁾이라고 해제를 달아 『당시기』의 보충적인 서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독서관견(讀史管見)』의 해제에서도 “『통감(通鑑)』이 사건을 잘 정리했으나 뜻이 소략한 까닭으로 이 책을 편찬했다”²⁶⁾고 하여, 『통감』의 소략한 부분에 대해 보충할 만한 서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유계외전(雷溪外傳)』²⁷⁾,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²⁸⁾, 『명기편년강목(明紀編年綱目)』²⁹⁾ 등 여러 서적이 있다.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주제든 가장 훌륭한 서적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널리 알려진 책만으로는 그 의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규장총목』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서적에 대해 제시해 줌으로써, 독서를 통해 보다 완벽한 학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4) 위의 책, 經部, 禮類.

“蔣汾功序曰 往時 崑山徐大司寇有讀禮通考一書 於諸禮 猶闕而未備 少宗伯秦公 奮然繼起 合五禮而編次之.”

25) 위의 책, 集部, 總集類.

“其自識曰 唐詩紀有初盛而無中晚 余分行本秘本二種 刻六十餘家云.”

26) 위의 책, 史部, 別史類.

“以通鑑事備而義少 故爲此書.”

27) 위의 책, 史部, 別史類.

“凡例曰 是傳稗史也 比正史不同 正史所載 皆搢紳先生德業事功 及關國家興廢大綱 此則俱草野隱逸韋布之士而能立名節者 間有一二前朝通顯 皆忠貞貫日 殺身成仁 它書不載 誠恐湮沒 故及之.”

28) 위의 책, 史部, 掌故類.

“依馬端臨凡例 續修元明典章 而又立節義書院氏族六書道統方外等諸考 以補馬氏之闕.”

29) 위의 책, 史部, 編年類.

“清 乾隆時 勅太學士張廷玉撰 明史既成 又倣朱子綱目體例 以續宋元.”

2.1.4 저자의 인물을 중시한 경우

목록의 편찬 시에 수록된 서적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도서의 저자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 『규장총목』의 해제에서는 내용 평가는 물론 저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1) 각 주제 분야의 주요한 인물인 경우, 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4.1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인 경우

경사자집(經史子集)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해제목록을 편찬하면서 수록 도서의 저자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규장총목』 역시 수록된 도서의 저자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주제 분야에서 훌륭한 저술을 남긴 저술가 또는 뛰어난 문장가로서의 평가도 있지만, 그 인물이 지닌 품성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경우도 있다.

명나라의 유신(遺臣)으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존경 받은 고염무(顧炎武)가 찬술한 『일지록(日知錄)』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편찬한 『일지록(日知錄)』은 옛 것을 상고함에 깨달음이 있고, 수시로 차기(筭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책을 완성한 것이다. 경의(經義), 사학(史學), 관방(官方), 이치(吏治), 재부(財賦), 전례(典禮), 여지(輿地), 예문(藝文) 등에 대해 일일이 그 원류를 소통(疏通)하고, 그 오류를 고정(考正)하였다. 학문이 넓고 지식이 정밀하며, 이치에 도달하고 일에 통달하였으니, 명나라 삼백년 동안 이 같은 인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所著日知錄 稽古有得 隨時筭記 久而成書 經義 史學 官方 吏治 財賦 典禮 輿地 藝文之屬 一一疏通其源流 考正其謬誤 學博而識精 理到而事達 明三百年 殆未有也)”³⁰⁾

이처럼 『일지록』의 해제에서 책을 편찬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저자 고염무(顧炎武)가 명나라 삼백년 동안 나오지 않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30) 위의 책, 子部, 儒家類.

『태현경(太玄經)』의 저자 양웅(揚雄)에 대해서도 “아! 양웅(揚雄)은 진실로 큰 선비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성인의 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를 손꼽고 있으며, 맹자와 순자도 견주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인물”³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자전서(周子全書)』의 해제에서도 “그 요지와 용도를 살펴보면 진한(秦漢) 이래의 여러 선비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조리의 긴밀함과 의미의 심장함 역시 금세의 학자들이 벼락치기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²⁾라고 하면서 그의 뛰어난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다.

『구산집(龜山集)』에서도 저자 양시(楊時)에 대해 “남송(南宋) 이래 동남학자들이 그를 추대하여 정씨(程氏)의 정통으로 삼았다”³³⁾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방옹집(放翁集)』에서도 “방옹 육유(放翁陸游)가 기문(記問)이 관통할만하고, 역량(力量)은 사람을 부릴만하고, 재사(才思)는 어렵고 숨은 뜻을 드러낼만하고, 기백(氣魄)이 능폭(陵暴)하니 남송 이래 제일”³⁴⁾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밖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임천집(臨川集)』³⁵⁾, 『진백사집(陳白沙集)』³⁶⁾, 『경야내편(涇野內篇)』³⁷⁾ 등 여러 종이 있다.

31) 위의 책, 子部, 儒家類.

“漢 成都揚雄 著 … 嗚呼 揚子雲 眞大儒者邪 孔子沒後 知聖人之道者 非子雲而誰 孟荀殆不足擬 況其餘乎.”

32) 위의 책, 子部, 儒家類.

“宋 周子著 … 顧其宏綱大用 非秦漢以來諸儒所及 而其條理之密 意味之淡 又非今世學者所能驟而窺也.”

33)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宋 工部侍郎將樂 楊時著 … 渡江以來 東南學者 推爲程氏正宗云.”

34)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宋 華文閣待制 陸游著 … 惟放翁 記問足以貫通 力量足以驅使 才思足以發越 氣魄足以陵暴 南渡而下 當爲第一.”

35)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宋 中書門下平章事 王安石著 ○陳振孫曰 方嘉祐以前 名重一世.”

36) 위의 책, 集部, 別集類.

“明 翰林 陳獻章著 … 論者謂有鳶飛魚躍之樂 而蘭溪姜麟至以爲活孟子云.”

37) 위의 책, 集部, 別集類.

“明 禮部侍郎 高陵呂柟著 … 耿定向序曰 明興鉅儒輩出 乃若清修勵節 抗志守道 嶮然無可疵者 惟涇野先生而已.”

2.1.4.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

『규장총목』에서는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 또는 시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대문장가에 대한 평가로서 구양수(歐陽脩)의 문집인 『구양공집(歐陽公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식(蘇軾)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나라 이래 500여년이 지나 한유(韓愈)가 나오자 학자들이 그를 맹자와 짝을 지었고, 한유 이후 300여년 뒤에 구양수(歐陽脩)가 나오자 그의 학문은 한유와 맹자를 밀고 나가서 공자에 도달하게 하였다. 예악과 인의의 실체를 드러내어 대도에 합하고, 그 말이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고, 진실하면서도 통달하며, 사물을 끌어들이며 부류에 연계시키고 지극한 이치로 절충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켰다. 그러므로 천하가 흠연히 스승으로 존경하여 선비에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모의하지 않아도 한 목소리로 ‘구양수 즉 구양수는 지금의 한유’라고 하는 것이다.(蘇軾序曰 自漢以來五百餘年而後得韓愈 學者以愈配孟子 愈之後三百餘年而後得歐陽脩 其學推韓愈孟子 以達於孔氏 著禮樂仁義之實 以合於大道 其言簡而明 信而通 引物連類 折之於至理 以服人心 故天下翕然師尊之 士無賢不肖 不謀而同曰 歐陽子 今之韓愈也)”³⁸⁾

위의 해제에서 소식(蘇軾)의 서문을 인용했지만, 구양수(歐陽脩)의 학문이 한유(韓愈)와 맹자(孟子)를 거쳐 공자(孔子)에까지 올라가고, 그가 한유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양(李東陽)의 문집인 『서애집(西涯集)』의 해제에서도 “명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문장으로 벼슬아치들을 영도한 사람은 양사기(楊士奇) 이후에 이동양 한 사람 뿐”³⁹⁾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몽양(李夢陽)에 대해서도 그의 문집인 『공동집(空同集)』에서 “칠언율시(七言律詩)의 경우 두보 이후로 둔좌법(頓挫法)과 도삽법(倒插法)을 가장 잘 쓴 사람이 오직 이몽양 한 사람 뿐이라 했다”⁴⁰⁾

38) 위의 책, 集部, 別集類.

39) 위의 책, 集部, 別集類.

“明吏部尙書茶陵 李東陽著 … 明興以來 以文章領袖搢紳者 楊士奇後 東陽一人而已.”

40) 위의 책, 集部, 別集類.

“明 江西提學副使 李夢陽著 … 王維楨以爲七言律 自杜甫以後 善用頓挫倒插之法 惟夢陽一人.”

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 시인에 대한 평가로서 중국의 도연명(陶淵明)의 문집인 「도정절집(陶靖節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식(蘇軾)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 없는데 유독 도연명(陶淵明)을 좋아한다. 도연명의 시는 질박하지만 사실은 화려하고 수척하지만 사실은 기름지다. 조식(曹植), 유정(劉楨), 심약(沈約), 사영운(謝靈運), 이백(李白), 두보(杜甫)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다.(蘇軾曰 吾於詩人無所好 獨好淵明 淵明詩 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沈謝李杜諸人 莫能及也)”⁴¹⁾

이처럼 도연명이 중국의 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식(曹植), 유정(劉楨), 심약(沈約), 사영운(謝靈運), 이백(李白), 두보(杜甫) 등이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백(李白)⁴²⁾, 두보(杜甫)⁴³⁾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동파집(東坡集)」⁴⁴⁾, 「하동집(河東集)」⁴⁵⁾, 「여동래집(呂東萊集)」⁴⁶⁾ 「유산집(遺山集)」⁴⁷⁾ 등 여러 종이 있다.

41) 위의 책, 集部, 別集類.

42)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唐 翰林待詔 山東李白著 … 曾鞏曰 白詩 連類引義 雖中於法度者寡 然其辭閎肆偉 殆騷人所不及 近世所未有 舊史稱 白有逸才 志氣宏放 飄然有超世之心 余以爲實錄.”

43)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唐 工部員外郎 杜甫著 … 故元稹謂 詩人以來 未有如子美者 甫又善陳時事 律切精深 至千言不少衰 世號爲詩史 昌黎韓愈於文章少許可 至歌詩 獨推曰 李杜文章在 光焰萬丈長 誠可信云.”

44)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宋 翰林學士 承旨 蘇軾著 ○晁公武曰 子瞻爲人 英辯奇偉 於書無所不通 所作文章 才落筆 四海已皆傳誦 下至閭閻田里 外至夷狄 莫不知名 門下賓客 亦皆一世豪傑 其盛本朝所未有也.”

45)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唐 柳州刺史 河東柳宗元著 ○晁公武曰 宗元少精敏絕倫 爲文章卓偉精微 既竄斥 湮厄感鬱 一寓諸文 傲離騷數十篇 讀者悲惻 韓退之曰 吾嘗評其文 雄深雅健 似司馬子長 崔蔡不足多也.”

46)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宋 著作郎 東萊呂祖謙著 總二十卷 王崇炳序曰 其爲文 波流雲湧 珠輝玉潔 爲一時著作之冠.”

47) 위의 책, 集部, 別集類.

2.1.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읽기 쉽게 편찬한 경우

『규장총목』에는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성을 강조한 사례로 명나라 서광계(徐光啓)가 편찬한 『농정전서(農政全書)』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자룡(陳子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정공(文定公) 서광계(徐光啓)는 학문이 하늘과 사람을 두루 궁구하되, 모두 실용(實用)에 중심을 두었다. 특히 농사에 뜻을 두어 몸소 농기구를 잡고 친히 초목의 맛을 보았다. 여러 사람의 견해를 잡다하게 채록하고 겸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책을 완성한 것이다.(陳子龍曰 徐文定公 學究天人 皆主實用 而尤留意農事 躬執耒耜之器 親嘗草木之味 襍採衆家 兼出獨見而成書)”⁴⁸⁾

위의 해제에서 서광계의 『농정전서』가 탁상공론적인 서적이 아니라 농사짓는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주자(朱子)와 여조겸(呂祖謙)이 집찬한 『근사록(近思錄)』의 해제에서 “주자(周子), 정자(程子) 형제, 장자(張子) 4명의 서적 중 대체(大體)에 관련되고 일용(日用)에 간절한 내용 619조로 구성되었다”⁴⁹⁾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만밀재전서(萬密齋全書)』의 해제에서도 “이 책은 이치가 있고 문사가 통달해서 시술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응해도 신술이 아닌 것이 없어서 진실로 수세보원(壽世保元)의 보배와 같은 것이므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⁵⁰⁾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할 실용 서적임을 알려 주고 있다.

“金 員外郎 太原元好問著 … 李治序以爲詩祖李杜 律切精深 文宗韓歐 正大明達云.”

48) 위의 책, 子部, 農家類.

49) 위의 책, 子部, 儒家類.

“宋朱子與呂祖謙輯 周程張四子書 關於大體而切於日用者 六百十九條 取切問近思之義以名之.”

50) 위의 책, 子部, 醫家類.

“密齋全書 理該辭達 試無不應 應無不神 眞壽世保元之珍 男女居室之所 不可須臾離者.”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농상집요(農桑輯要)』⁵¹⁾, 『황명경제문집(皇明經濟文輯)』⁵²⁾ 등 여러 종이 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비교적 읽기 쉽도록 쉽게 편찬한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적으로 『의례경전통해구속(儀禮經傳通解具續)』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례(儀禮)』는 예(禮)의 근본이며 『예기(禮記)』는 그 지엽적인 것이다. 『예기』는 본래 진한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선비들이 『의례』를 해석한 책이다. …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전의 어진 사람들은 항상 『의례(儀禮)』가 읽기 어렵다고 걱정하셨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단지 이 경문이 장(章)으로 구분되지 않고, 기술 또한 경문을 따르지 않고 주소(注疏)도 각각 한 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책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폐단을 완전히 없애버렸다.(朱子曰 儀禮 禮之根本 而禮記 乃其枝葉 禮記本秦漢上下諸儒 解釋儀禮之書 … 又曰 前賢常患 儀禮難讀 以今觀之 只是經不分章 記不隨經 而注疏各爲一書 故使讀者 不能遽曉 今定此本 盡去諸弊[실은弊])”⁵³⁾

이처럼 이 책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찬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해성품자전(諧聲品字箋)』의 해제에서도 “서경(西京) 이후 가방(賈紡)의 『삼창(三倉)』과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 540부는 글자체에 의거하여 절운(切韻)하였으므로 분별이 처음으로 상세해졌지만, 해성(諧聲)으로 품자(品字)를 하지 않았다. 6만개의 기이한 글자를 57성에 포괄해서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후학들에게 미친 공이 있다”⁵⁴⁾고 기술하여

51) 위의 책, 子部, 農家類.

“又慮夫田里之人 雖能動身從事而播植之宜 蚕[蠶]繰之節 或未得其術 於是 徧求古今農家書 披閱參考 刪其繁重 摭其切要 纂成一書.”

52) 위의 책, 子部, 類事類.

“其自序曰 取我朝先正文 擇其有神於實用者 彙以讀之.”

53) 위의 책, 經部, 禮類.

54) 위의 책, 經部, 小學類.

“黃機序曰 西京以後 若賈紡三倉許慎五百四十部 依體切韻 分別始詳 然未有以諧聲爲品字者 … 舉六萬有奇之字 包括於五十七聲 使人探索易知 實有功於後學.”

이 책 덕분에 후학들이 글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성리제가해(性理諸家解)』의 해제에서도 양유총(楊維聰)의 서문을 인용하여 “성리학 관련 서적이 송나라 때부터 나왔는데, 그 말은 심오하고 그 뜻은 심원해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쉽게 진입할 수 없었다. 지금 원락공(苑洛公) 한방기(韓邦奇)가 잘 설명해 주어서 일반 선비들을 잘 깨우쳤다”⁵⁵⁾고 기술하여 내용이 어려운 성리학 서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광백장전(廣百將傳)』⁵⁶⁾, 『경의고(經義考)』⁵⁷⁾ 등 여러 종이 있다.

2.1.6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규장총목』에서는 서적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책의 내용이 불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록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조야류요(朝野類要)』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 그 대강이 마치 채옹(蔡邕)의 『독단(獨斷)』 같다. 송대의 관청문서와 벼슬아치들의 관용어로서 지금 글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책을 살펴보면 왕왕 그 뜻을 얻는 경우가 많다.(徵引朝廷故事 大致如蔡邕獨斷 宋代案牘之文與搢紳之習語 今有不可以文義解者 披檢是書 往往多得其意)”⁵⁸⁾

『조야류요(朝野類要)』의 해제에 드러난 바와 같이, 책의 내용이 아주 깊이가

55) 위의 책, 子部, 儒家類.

“楊維聰序曰 性理諸書 自宋儒發之 所以道陰陽 闡性命 其辭淡 其旨遠 學非上達 茫未易入 今得苑洛公 發明之 所以戶牖諸生者 不甚至乎.”

56) 위의 책, 子部, 兵家類.

“此舊本 所以不足重輕也 因取而較之 芟其繁文 出其精要 又總斷其智勇之所在 使覽者會心而悟云.”

57) 위의 책, 經部, 總經類.

“朱子竹垞 窮搜討之力 出家所藏書八萬餘卷 輯其說之可據者 署其經名而分系其下 使窮經之士 一覽而知所考.”

58) 위의 책, 子部, 說家類.

있지는 않지만 후학들이 불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백가류찬(百家類纂)』에서도 “옛 것을 상고하는 사람이 불만한 것이 있다”⁵⁹⁾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원헌집(元憲集)』⁶⁰⁾, 『사문류취(事文類聚)』⁶¹⁾, 『승암외집(升菴外集)』⁶²⁾ 등 여러 종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서적에 대해 높은 찬사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책의 내용 가운데 부분적으로라도 취할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1.7 책의 장단점을 함께 논한 경우

『규장총목』에서는 해제를 기술하면서 특정 서적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까지 지적해 주고 있는데,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명나라 양신(楊慎)이 편찬한 『단연여록(丹鉛餘錄)』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고서를 잡다하게 인용하여 변증(辯證)한 것이 많다. 그러나 넓은 것에만 힘써서 정밀하지 못하고, 기이한 것만 좋아해서 미혹된 것에 가깝다. 진요문(陳耀文)과 호응린(胡應麟)이 모두 그 틀린 부분 대해 논박했다.(是書雜引古書 多所辯證 然務博而不精 好竒而近誣 陳耀文胡應麟 皆駁其舛謬)”⁶³⁾

59) 위의 책, 子部, 類事類.

“百家異方言 人人殊 不別其類則其體殼 不纂其玄則其旨雜 均非所以通萬方之略也 故不揣愚陋 僭爲證次 使考古者 得有所覽焉.”

60) 위의 책, 集部, 別集類.

“然以其文章淹雅 可取者多 故大典所載 特爲繁富 集中多館閣之作 皆溫雅瑰麗 瀾灑乎治世之音.”

61) 위의 책, 子部, 類事類.

“先以群書要語 次以古今事實 次以古今文集 分綱列目 采摭頗詳焉.”

62) 위의 책, 集部, 別集類.

“顧起元序 以爲 升菴著述 奇麗奧雅 漁弋四部七略之間 事提其要 言纂其玄 自唐宋以來 亦罕云.”

63) 위의 책, 子部, 說家類.

위의 해제에서 책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기술하여 독자들이 책을 읽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서이동조변(四書異同條辨)』의 해제에서도 “그 책이 상고하여 조사한 내용이 정밀하고 문로(門路)가 바르므로 근대 여러 선비들이 그에 필적할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그 연구가 너무나 상세하고, 분석이 너무 번잡하여 산만하고 자잘한 병통을 면할 수가 없다”⁶⁴⁾고 하여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해 주고 있다. 『홍포집(鴻苞集)』의 해제에서도 “장응문(張應文)이 칭송하기를 그 책은 삼고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고금을 망라하였으며, 정밀하게는 조화에 들어가고 소략하게는 명물에 미쳐서 미묘한 말과 오묘한 뜻을 후학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많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을 면치 못했다”⁶⁵⁾고 기술하여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해 주고 있다. 또한 『목재초학집(牧齋初學集)』에서 “전겸익(錢謙益)의 경술과 문장은 당대에 추중(推重) 받을 만하지만, 청나라 군사가 남경(南京)에 왔을 때 맨 먼저 예왕(豫王)에게 아부영합(阿附迎合)하여 예부상서(禮部尙書)의 직함을 보전한 것에 대해 식자들이 부끄럽게 여긴다”⁶⁶⁾고 하면서 그의 경술과 문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명나라 신하로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청나라에서 자신의 직책을 보전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승암별집(升菴別集)』⁶⁷⁾, 『왕씨가장집(王氏家藏集)』⁶⁸⁾, 『명사(明史)』⁶⁹⁾ 등이 있다.

64) 위의 책, 經部, 四書類.

“考核之精 門路之正 近代諸儒鮮有倫比 然研究太密 分析太繁 支離破碎之病 亦所不能免焉.”

65) 위의 책, 子部, 說家類.

“明 禮部主事 鄧縣屋隆撰 張應文稱 其書參合三教 綱羅古今 精入造化 散及名物 微言奧義 開示來學甚多 然亦未免過諛云.”

66) 위의 책, 集部, 別集類.

“清 禮部尙書 錢謙益著 謙益 當崇禎末 以經術文章爲一世所推重 及清兵到南京 首先迎附於豫王 得保禮部尙書銜 識者恥之.”

67) 위의 책, 集部, 別集類.

“王世貞曰 升菴工於證經而踈於解經 詳於稗史而忽於正史 詳於詩事而不得詩旨 求之宇宙之外而失之耳目之前.”

68)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廷相博學好議論 於星歷輿圖樂律象數之學 皆有所論辯 尤以經術自標 然識解專尙乖僻

2.1.8 책의 내용이나 저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규장총목』에서는 책의 내용이나 저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심한 경우에는 거들 떠 볼 필요도 없는 책이라고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있다.

책의 내용에 아주 문제가 있는 서적으로 『고수부담(孤樹裒談)』의 해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인협(張仁浹)은 ‘이 책에서 기술한 사적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張仁浹曰 此書所述事蹟 有未可盡信處)”⁷⁰⁾

이처럼 서적의 내용에 아주 문제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송사(宋史)』에 대해서도 “중국의 역대 역사서 중 가장 난잡하고 자디잘다”⁷¹⁾고 혹평하였으며, 일본 서적인 『화한역대비고(和漢歷代備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대부분 괴이하고 편벽된 일과 망령되고 황당한 설”⁷²⁾이라고 혹평하였다.

또한 저자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주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청나라의 학자 모기령(毛奇齡)에 대해서도 악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의 문집인 『서하집(西河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나라 한림원(翰林院) 검토관(檢討官) 모기령(毛奇齡) 지음. 기령은 거침없는 말재주로 넓고 깊은 학문까지 겸비하였으나, 평생 저술은 주자를 배격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참으로 괴음사둔(詖淫邪遁)의 으뜸이므로, 공문(孔門)에서

率與宋儒背馳.”

69) 위의 책, 史部, 正史類.

“天文曆法 專出於西洋人戴進賢 故絕勝前代史 自萬曆至崇禎 遼瀋之事 語多忌諱 後世莫可考信.”

70) 위의 책, 史部, 別史類.

71) 위의 책, 史部, 正史類.

“歷代史中最叢雜駢亂.”

72) 위의 책, 史部, 編年類.

“所紀多神怪迂僻之事 僭妄荒誕之說.”

반드시 죽여 없애야만 하는 놈이다.(淸 翰林檢討 毛奇齡著 奇齡以縱橫之辯濟之以淹博 而平生著述 唯以排擊朱子爲務 眞詖淫邪遁之尤 聖門之所不容不誅絕者也)”⁷³⁾

위의 해제에서 모기령이 주자를 배격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이유로 죽여 없애 버릴 놈이라고 아주 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모기령에 대한 평가는 『규장총목』의 편찬을 명한 정조와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 정조는 주자를 지극히 존송하였으며⁷⁴⁾, “학자가 바름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자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⁷⁵⁾고 하여 주자를 학문의 표상으로 여겼다. 정조는 요순우탕(堯舜禹湯)으로 이어지는 옛 성왕들의 도가 공자를 거쳐서 주자로 계승되었으므로, 주자의 존경과 숭배는 곧 공자에 대한 존송인 동시에 유학을 지키고 정학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⁷⁶⁾

『규장총목』에서는 수록된 서적의 해제에서 문제시 되는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해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는 『남화경부묵(南華經副墨)』⁷⁷⁾, 『당서(唐書)』⁷⁸⁾ 등 여러 종이 있다.

『규장총목』에서는 수록된 서적의 해제를 기술하면서, 책의 내용이나 인물에 심감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비판을 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나름대로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73) 위의 책, 集部, 別集類.

74) 신승운 역, 『군서표기』(홍재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御定3, 『五子手圈』) “朱子出而衆說伏 明天理正人心 揭之爲日星 載之爲華嶽 垂而範之 爲天下萬世之章圖法程 前聖後聖 其揆一也.”

75) 正祖,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5, 文學5.
“學者欲得正 必以朱子爲準的.”

76) 김문식, “정조대 경학문헌의 특징,” 『韓國學報』 100(2000), 79.
리상용,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 3), 384-385 재인용.

77) 奎章總目, 子部, 道家類.
“胡應麟曰 莊周南華 其文辭 瑰嶇橫放 固獨行天地間 至掊擊聖神 凌侮賢哲 亦生民以來 未有之變也.”

78) 위의 책, 史部, 正史類.
“繁略不均 多所闕漏.”

2.2 사상적 가치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적 가치란 유가적 사상 또는 도학과 연계된 서적을 의미한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의 목적이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도학실현(道學實現)에 있었으므로, 이 사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가 질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 사상적 가치는 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2)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규장총목」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인 유교의 질서 속에서 유가의 시조인 공자(孔子)를 필두로 하여, 정자(程子), 장자(張子), 주자(朱子) 등 중국에서 공자의 학통을 계승한 대학자들의 서적과 그들을 따른 인물들의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이정전서(二程全書)」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朱子)가 말했다. 명도(明道)의 말은 밝게 드러냄이 극치에 이르고 환하게 꿰뚫고 시원스러워서 사람들을 잘 개발(開發)시켜 준다. 이천(伊川)의 말은 일마다 이치를 밝히고, 질박하고 성실하며 정밀하고 심오하니, 더욱 음미할 만하다. 그러나 명도의 말은 한번 보아도 좋고, 오래보면 더욱 좋으므로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이익을 얻게 된다. 이천의 말은 잠깐 보면 좋지 않지만, 오래 보면 좋아진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깊이 음미하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한다.(朱子曰 明道之言 發明極致 通透灑落 善開發人 伊川之言 卽事明理 質慤精深 尤耐咀嚼 然明道之言 一見便好 久看愈好 所以賢愚同獲其益 伊川之言 乍看未好 久看方好 故非久於玩索者 不能知其味)”⁷⁹⁾

위의 해제에서 송나라의 대유학자인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의 학문적 성향의 차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기술해 주고 있다.

79) 위의 책, 子部, 儒家類.

또한 『장자전서(張子全書)』에서 “장횡거(張橫渠)가 인의(仁義), 도덕(道德)의 이치와 사생(死生), 성명(性命)의 구분과 치란(治亂), 국가(國家)의 범을 연구하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전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맹자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다”⁸⁰⁾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주자(朱子)에 대해서도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황간(黃榦)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은 옛 성인의 미약해지는 단서를 계승하였고, 이전의 현인이 밝혀내지 못한 기미를 열었습니다. 여러 유자의 득실을 분별하고, 이단의 오류를 물리쳤으며,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 잡았습니다. … 선생이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은 데 이르러서도 모두 일상의 언행이 법도에 맞으시니 세상의 본보기가 될 만하십니다. 타고난 품성이 비상하고 학행(學行)이 돈독하지 않으면, 어찌 사물(事物)마다 각각 그 이치에 합당하고, 각각 그 지극한 수준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이는 하늘이 우리 유교를 도우시어 현철한 분을 세상에 내셔서 우리 유교의 전승(傳承)을 크게 한 것 일 겁니다. (黃榦曰 先生繼往聖將微之緒 啓前賢未發之機 辨諸儒之得失 闢異端之訛繆 明天理 正人心 … 至先生未嘗用意 而亦皆動中規繩 可爲世法 是非資稟之異 學行之篤 安能事事物物 各當其理 各造其極哉 嗚呼 是殆天所以相斯文 篤生哲人 以大斯道之傳也)”⁸¹⁾

위의 해제에서 주자의 제자이자 사위인 황간(黃榦)이 서술한 내용을 인용했지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규장총목』에서는 주자의 저술 외에도 그를 추존한 서적으로 『주역본의절중(周易本義折中)』⁸²⁾, 『시전휘찬(詩傳彙纂)』⁸³⁾, 『사서몽인(四書蒙引)』⁸⁴⁾, 『증정사서(增訂四書)』⁸⁵⁾ 등 여러 종을 수록하고 있다.

80) 위의 책, 子部, 儒家類.

“宋橫渠張子著 朱子註 總十五卷 張舜民 以爲仁義道德之理 死生性命之分 治亂國家之經 罔不究通 方之前人 其孟軻之流云.”

81) 위의 책, 集部, 別集類.

82) 위의 책, 經部, 易類.

“經自爲經 翼自爲翼 悉復朱子之舊.”

83) 위의 책, 經部, 詩類.

“以朱子集傳爲宗 而集說折中.”

84) 위의 책, 經部, 四書類.

“四書則數十年潛心自得 所著易四書蒙引 一遵朱子本義 章句集註 竝多發明 學者宗之.”

2.2.2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규장총목』에는 훌륭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유가적 정치사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선비들의 독서 목적은 경서에서 성현들이 표방하는 도학을 배우고, 과거에 합격한 후에 이때까지 공부해 온 성현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고 실천하는 유가 정치사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정치사상을 수록한 서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먼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원문류(元文類)』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려(陳旅)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록한 내용은 반드시 정치에 관련된 것과 세교(世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다. 간혹 고상한 저작 중 세속에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취하고, 혹은 그 논술 중에 사가(史家)에 도움 될 만한 것을 취했다. 대개 이 같은 내용이 아니면 비록 좋아해도 취하지 않았다.(陳旅序曰 所取者 必其有繫於政治 有補於世教 或取其雅製之足以範俗 或取其論述之足以輔翼史氏 凡非此者 雖好弗取也)”⁸⁶⁾

위의 해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문류』에서 정치와 관련되고 세교(世教)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명사본말(明史本末)』의 해제에서도 “이 책은 곡응태(谷應泰)가 원추(袁樞)의 『기사본말(紀事本末)』을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삼백년 동안 정치의 본체에 관련되고, 전장(典章)을 상고할만한 내용을 수록한 것임”⁸⁷⁾을 밝히고 있다. 당순지(唐順之)가 편찬한 『좌편(左編)』의 해제에서도 “이 책은 역대의 정사(正史)를 섭렵하여 분류하여 집찬한 것인데, 그의 자서에서 『좌편(左編)』이란 다

85) 위의 책, 經部, 四書類.

“凡例以爲大書朱子集註 而諸家之說 分行小書.”

86) 위의 책, 集部, 總集類.

87) 위의 책, 史部, 別史類.

“清谷應泰著 倣袁樞紀事本末 以三百年間 取關治體 可考典章者 分門立篇.”

스리는 법을 위해 편찬한 것이므로 다스림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수록하지 않았다”⁸⁸⁾고 하여 이 책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헌으로는 『유청전집(留靑全集)』⁸⁹⁾, 『정관정요(貞觀政要)』⁹⁰⁾, 『황명보훈(皇明寶訓)』⁹¹⁾ 등 여러 종이 있다.

2.3 서지적 가치

여기에서 말하는 서지적 가치란 서적이 지니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해제를 내린 경우를 말한다. 이 서지적 가치는 1) 서지적 기술을 한 경우, 2) 특정서적을 저본으로 편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서지적 기술을 한 경우

이 유형은 고서의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유(韓愈)의 문집인 『한문(韓文)』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재(王材)가 서문에서 가재 유거경(可齋游居敬)이 영국부(寧國府)에서 판각한 이 책은 고이(考異)와 논주(論注)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감과

88) 위의 책, 史部, 別史類.

“明武進唐順之編 彙括歷代正史 分門彙輯 自序以爲左編者 爲治法而纂也 非關於治者 勿錄云.”

89) 위의 책, 集部, 總集類.

“自序曰 乃檢篋中存稿次第編閱 凡有關經濟切中政治家 悉爲采入 上自公卿大夫 下至市兒村塾 近而城郭里巷 遠而荒陬僻壤 久爲藝林珍賞 網羅悉備.”

90) 위의 책, 史部, 別史類.

“晁公武曰 競以唐之極治 貞觀爲取 故採時政之可備勸戒者 上之於朝.”

91) 위의 책, 史部, 別史類.

“自太祖至穆宗 十朝謨訓之有關治體者 分門彙次 總三十九卷.”

분석이 상당히 정밀하므로 선본(善本)이라 칭송했다.(王材序以爲可齋游君所刻寧國本 雖不載考異論注 然讐覈頗精 稱善本云)⁹²⁾

위의 글에서 유거경이 판각한 「한문(韓文)」의 교감이 철저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선본(善本)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한유(韓愈)의 문집에 대해서적의 교감적인 측면에서 해제를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책의 저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좌구명(左丘明)의 「국어(國語)」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진손(陳振孫)이 이렇게 말했다. 반고(班固)의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서 「국어(國語)」 21편 좌구명(左丘明) 저(著)라고 했다. 지금까지 「춘추전」과 병행하여 외전으로 삼는다. 지금 두 책을 상고해 보면, 비록 서로 내용의 출입이 있지만, 사건과 말에 간혹 차이가 많고 문체도 비슷하지 않으므로, 생각건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陳振孫曰 自班固志藝文 有國語二十一篇 左丘明所著 至今與春秋傳並行 號爲外傳 今考二書 雖相出入 而事辭或多異同 文體亦不類 意必非出一人之手也)⁹³⁾

이처럼 「국어」의 해제에서 진진손(陳振孫)의 말을 인용하여, 「한서예문지」에서 저자표시를 좌구명이라고 한데 대해, 내용적 차이와 문체 등의 차이를 들어서 이 책이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관자(管子)」의 해제에서도 「송렴(宋濂)의 말하기를 편수제(篇首題)에서 당나라 사공 방현령(司空 房玄齡)이 주해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지장(尹知章)의 주(註)에서 이 책은 관중(管仲)의 자저(自著)가 아니라고 했다. 의심컨대, 전국시대 사람이 관중의 언행을 모으고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붙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모장서시(毛嬙西施)’, ‘오왕호검(吳王好劍)’, ‘위공지사 오공자지난(威公之死 五公子之亂)’과 같은 사건은 모두 관중 이후에 나왔으므로 미리 기록할 수 없다. 또한 주자가 ‘관중은 제(齊)나라의 국정을 맡았고, 또 삼귀(三歸)에 빠져 지냈는데, 무슨 틈에 책을 저술했겠느냐’라고 말씀

92) 위의 책, 集部, 別集類.

93) 위의 책, 經部, 春秋類.

하셨는데 그 말이 옳다”⁹⁴)고 하면서 「관자(管子)」의 저자 문제에 대해 논의 한 것이다.

다음으로 목록에 대해 평가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로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양웅(陸錫熊)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목록류는 모두 사부(史部)에 분류했다. 유흠(劉歆) 「칠략(七略)」 이후로 편찬된 목록은 손가락으로 이루 다 꼽을 수 없지만, 지금 전해지는 것은 「송문총목(崇文總目)」, 우무(尤袤)의 「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 조공무(晁公武)의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및 이 책[직재서록해제] 뿐이다. 「수초당서목」은 본래 주(註)가 없고, 「송문총목」은 주(註)가 이미 산실(散佚) 되었으므로 여러 서적의 원류(源流)를 상고할 수 있는 서적은 오로지 조공무의 「군재독서지」와 이 책 뿐이다. (陸錫熊曰 攷諸前史 目錄類皆入史部 自劉歆七略以下 著錄者指不勝屈 其存於今者 崇文總目 尤袤遂初堂書目 晁公武郡齋讀書志及此書而已 遂初堂書目 本無註 崇文總目 註已散佚 其可攷見諸書源流者 唯晁書及此書)⁹⁵)

즉, 이 「직재서록해제」가 「송문총목」이나 「수초당서목」에 비해 서적의 원류를 상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록이라고 기술하여 독자들이 목록을 조사할 경우에 참고할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록에서 저록의 표제어와 도서의 분류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의 해제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안찰하건대, 이 책의 편찬은 전적으로 문연각에 입직한 기운(紀昀)에게 나온 것이다. 먼저 서명과 권수를 열기하고, 그 다음에 편찬시대와 편찬자를 주기하고, 그 아래 간략하게 작자가 귀결하려는 뜻을 대략 열거했는데, 정밀하고 핵심적이며 간략하고 합당하여 왕왕 핵심을 찌른다. 그러나 그 취사선택의 취지에 대단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 강절(康節)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

94) 위의 책, 子部, 雜家類.
“宋濂曰 篇首題云 唐司空房玄齡註 或云非也 尹知章註 是書 非仲自著也 疑戰國時人 采摭仲之言行 附以他書成之 不然 毛嬙西施 吳王好劍 威公之死 五公子之亂 事皆出仲後 不應豫載之也 朱子謂 仲任齊國之政 又有三歸之溺 奚暇著書 其說是矣.”

95) 위의 책, 史部, 總目類.

(皇極經世書)가 유가류(儒家類)에 분류되지 못하고 「태극통서(太極通書)」, 「정몽(正蒙)」, 「역계몽(易啓蒙)」 같은 부류는 모두 목록에서 표제어로 설정되지 못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오직 명말 문집 중에 서위(徐渭) 원굉도(袁宏道) 이하 여러 사람들을 모두 수록하지 않은 것은 조금 마음에 드나 위희(魏禧), 고염무(顧炎武), 소장형(邵長蘅)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이 같은 예로 배척당했으니 어찌 꺼리고 피하느라 감히 수록하지 않았겠는가? 아! 수천년의 서적을 수집하여 뛰어난 목록을 완성하였는데, 이에 한 시대의 사적인 꺼림과 한 사람의 편견으로 그 사이에 뒤섞였으니 참 어렵구나(臣謹按 是書編纂 專出於直文淵閣紀旬(昫) 首列某書幾卷 下註某代某人撰 其下係以數語 略舉作者之指歸 精核簡當 往往中綮 然其持擇予奪之意 則有大不可曉者 … 至以邵子經世之書 不可入於儒家 而太極通書,正蒙,易啓蒙之類 皆不別立目錄 則其意之所在可知矣 惟於明季文集中 盡黜徐袁以下諸家 差足快意 而如魏禧顧炎武邵長蘅者 亦復一例遭擯 豈有所諱忌而不敢載歟 噫 蒐羅千百年之載籍 以成不刊之制作 而乃欲以一時之私諱 一人之偏見 參錯於其間 難矣)⁹⁶⁾

위의 해제에서 「사고전서간명목록」의 저록의 취사선택과 분류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목록편찬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증절통감(增節通鑑)」에 대한 판본 논의⁹⁷⁾를 하는 등 다양한 서지적 기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들은 전술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책의 교감, 저자문제, 분류문제, 저록의 표제어 설정문제 등 서지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다른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 기준을 통해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서적 자체에 대한 평가 또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들 수 있겠다.

2.3.2 특정서적에 의거하여 편찬한 경우

이 「규장총목」에서는 서적의 해제를 기술하면서 도서의 범례를 대본으로 삼은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누항지(陋巷志)」,

96) 위의 책, 史部, 總目類.

97) 위의 책, 史部, 編年類.

“宋會稽陸唐老集注 總例曰 通鑑一書溫公 舊有節本 蜀中有音註本 浙中有增節本 吾郡張公有增續本 近得壯元陸公點校集註本 有諸本之所長 而無其差舛.”

와 「하씨어림(何氏語林)」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항지(陋巷志)」

“그 의례(義例)는 대부분 「궐리지(闕里志)」에서 취했다.(其義例 多取諸闕里志)”⁹⁸⁾

「하씨어림(何氏語林)」

“문진맹(文震孟)이 서문에서 ‘의례(儀例)는 전적으로 임천왕(臨川王) 즉 유의경(劉義慶)의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준거하였다’고 하였다.(文震孟序曰 義例全倣臨川新語)”⁹⁹⁾

위의 해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을 편찬할 때 그 바탕이 된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당송총서(唐宋叢書)」에서는 “이 책이 「한위총서(漢魏叢書)」의 범례에 의거해서 그 유서(遺書)를 보충하고 그 뒤에 나온 서적들을 수록했다”¹⁰⁰⁾고 기술하였다. 「열조시집(列朝詩集)」에서는 “이 책이 금나라 사람 원호문(元好問)의 「중주집(中州集)」에 준거하여 명나라 한 시대의 시를 기록하고 작자에 대해 각각 소전(小傳)을 기록하였다”¹⁰¹⁾고 해제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 「광근사록(廣近思錄)」¹⁰²⁾, 「통감집람(通鑑輯覽)」¹⁰³⁾과 「원시선(元詩選)」¹⁰⁴⁾ 등 여러 종이 있다.

98) 위의 책, 子部, 儒家類.

99) 위의 책, 子部, 說家類.

100) 위의 책, 子部, 叢書類.

“明錢唐鍾人傑輯 依漢魏叢書凡例 補其遺書 錄其後出 總八十八種.”

101) 위의 책, 集部, 別集類.

“倣金人元好問中州集 紀明一代之詩 各有小傳.”

102) 위의 책, 子部, 儒家類.

“編目義例 悉倣近思原錄.”

103) 위의 책, 史部, 編年類.

“其書 倣司馬光學要之例.”

104) 위의 책, 集部, 總集類.

“倣中州集 宋詩鈔 各係小傳.”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여기에서는 앞에서 「규장총목」의 각 저록에 부기된 해제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서적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을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자료평가기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목록에 수록된 도서에 대한 질적 평가나 특정 기관에 소장된 장서에 대한 질적 평가는 ‘특정한 컬렉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장서평가란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규장총목」이 규장각의 개유외에 소장된 서적을 대상으로 편찬한 목록인 만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장서개발론의 대학자로는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등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한 장서평가이론의 핵심 사항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의 장서평가기준을 종합한 후에 그 기준을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와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희는 「장서관리」에서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스피러(Spiller) 등 장서개발 분야의 주요 학자들이 도서관 자료를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해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 요소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내용은 1) 저작 사항으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에 관한 것, 2) 내용 사항으로 주제, 주제의 범위, 주제를 다루는 방식, 표현, 문체 등에 관한 것, 3) 물리적인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등에 관한 것, 4) 도서관 장서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것 등이다.¹⁰⁵⁾ 윤희운도 그의 「장서관리론」에서 일반도서의 선택기준으로 1) 저자의 권위, 2) 주제와 범위, 3) 물리적 특성, 4) 독자에 대한 가치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¹⁰⁶⁾ 이 두 사람 모두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참조하여 그 주요한 골자를 추려서 구분한 것이므로, 위의 두 사람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뼈대는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105)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122-123.

106) 윤희운,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2007), 140.

이에 필자는 상기한 현대 문헌정보학자들이 제시한 장서평가기준 가운데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평가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1) 저자 사항, 2) 내용사항, 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저자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을 보면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¹⁰⁷⁾ 특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다른 후학들에게 존경 받는 유명한 학자의 저술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저자 가운데 가장 권위 있으며 후학들에게 존경 받는 인물을 꼽으려면, 당시 조선 후기의 사상적인 기반이 성리학인 만큼, 그 시조인 공자와 그의 학문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와 같은 인물들일 것이다. 그들은 선비들에게 최고의 학자로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며, 이 『규장총목』의 편찬을 명령한 정조 역시 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기본적으로 『규장총목』에서는 각 주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명나라의 유신(遺臣)으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높이 존경 받은 고염무(顧炎武)에 대해서 ‘명나라 삼백년 동안 나오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하였으며, 『태현경(太玄經)』의 저자 양웅(揚雄)에 대해서도 ‘맹자와 순자도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동진, 송나라 때의 대표적인 시인인 도연명(陶淵明)에 대해서도 ‘사영운(謝靈運), 이백(李白), 두보(杜甫) 등과 같은 중국의 유명 시인들이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였으며, 남송의 대표적인 시인인 육유(陸游)에 대해서도 ‘남송 이래 제일가는 시인’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두보(杜甫)에 대해서도 ‘최고의 시인’이라고 극찬하였다.

이밖에 주자(周子), 양시(楊時), 이동양(李東陽),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107) 윤희운, 140.

소식(蘇軾) 등 중국의 대학자와 문장가와 시인들의 저작을 수록하고 그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저자들은 각 주제 분야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 저자의 학문적인 우수성, 해당 분야에서의 권위, 후학들에 받는 존경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저자평가기준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겠다.

3.2 내용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에서 내용 사항이란 각 주제, 주제의 범위, 표현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자에의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정보의 정확성 등 주로 책에 담겨진 내용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¹⁰⁸⁾

기본적으로 규장각에 들어온 서적들은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수입된 서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뛰어난 조선의 학자들이 연행사신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 둔 구입예정목록을 토대로 실물을 직접 보고 구입해 온 것이다. 또한 그들이 서점에 있는 많은 서적들을 살펴보고, 구입할만한 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들어온 것이므로 그 도서들은 이미 선정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장총목」에 수록된 대부분의 도서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규장총목」에는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우수한 서적, 수록범위가 넓은 서적, 특정 서적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서적,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읽기 쉽게 편찬한 서적, 책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준 서적 등을 수록하고, 이밖에 책의 내용상 문제가 있는 서적까지 수록하여 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제를 기술하였다.

「세설신어」가 ‘고금에 비할 데 없는 뛰어난 책이며 후세의 군자들이 읽어야

108)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122-123.

할 책'이라고 하고, 도가서적인 『금단정리대전(金丹正理大全)』 역시 '수진(修真)의 모범이 될만한 책'이라고 찬사하여 그 수록 내용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명나라 때 편찬된 『명산승개기(名山勝槩記)』에 대해서는 '여행에 관련된 모든 저작이 담겨졌다'고 하여 그 폭넓은 수록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중만당시기(中晚唐詩紀)』에서는 '『당시기(唐詩紀)』에서 초당(初唐)과 성당(盛唐)의 시만 수록하고 중당(中唐)과 만당(晚唐)의 시는 다루지 않아서 『당시기』에 대한 보충적인 서적'으로 이 책의 가치를 밝혀 주었다.

명나라 서광계(徐光啓)가 편찬한 『농정전서(農政全書)』에 대해서도 '그가 실용(實用)에 역점을 두어 탁상공론적인 농서가 아니라 실제로 농사에 사용이 가능한 서적을 편찬한 것'이라고 하여 그 실용성을 알려주고, 『성리제가해(性理諸家解)』와 『의례경전통해구속(儀禮經傳通解具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쉽게 풀어 쓴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단연여록(丹鉛餘錄)』, 『사서이동조변(四書異同條辨)』, 『홍포집(鴻苞集)』에서는 '책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해제하여' 독자들이 책을 읽는데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수록 서적에 대해 이처럼 좋은 부분만 기술한 것은 아니다. 서적의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송사(宋史)』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대 역사서 중 가장 난잡하다'고 혹평하였으며, 일본서적인 『화한역대비고(和漢歷代備考)』에 대해서도 '내용이 대부분 괴이하고 황당한 설'이라고 혹평한 것이다. 이처럼 『규장총목』에서는 수록된 서적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철저히 비판을 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밖에 『규장총목』에서는 당시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주자와 배치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제를 기술했지만, 당시 유교적인 질서에서 이단(異端)시 했던 노가의 서적 가운데 『남화경부묵(南華經副墨)』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가와 불가의 서적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었다. 이 같은 평가는 종교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서적 자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이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들의 입수 과정과 수록된 서적의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서적은 각 주제 분야에서 비교적 내용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문헌정보학적인 장서평가기준에서 보아도 그 질적 수준이 높은 서적들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3.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도서관에서의 유용성이란 소장된 책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등에 중점을 둔 문제를 뜻한다.¹⁰⁹⁾

「군서표기」에 수록된 「규장총목」의 해제에서 “서명(書名) 다음에 저자의 성명과 해당 저서의 의례(義例)를 기록하였다. 어느 것은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을 알맞게 줄여서 그 규모의 대강을 보였고, 어느 것은 그 책의 평가(評價)를 인용하여 그 책의 편집상의 득실(得失)을 밝혔으며, 혹은 간질(簡帙)의 존망(存亡)을 밝힘으로써 그 책의 연혁(沿革)을 조사하는 데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별집류(別集類)에서는 저자의 인품(人品)에 대한 평가와 문장에 대한 평가까지도 모두 널리 수집하여 이 책을 보면 또렷이 알 수 있게 하였다”¹¹⁰⁾라고 기술하여, 당시 이 「규장총목」의 편찬목적이 수록된 서적에 대한 내용적 평가는 물론 저자의 인품과 문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 선비들에게 개유와에 소장된 중국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이 중국본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서적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이용적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109)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123.

110) 신승운 역, 「군서표기」(홍재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命撰1 「奎章總目」)
每書之下 標其撰人姓名及所著義例 或節取序跋 以見其規模之槩略 或援引評覽 以明其編摩之得失 又或以帙之廢興 俾資其沿革之考據 而至於別集之類 則人品雖黃 文章月朝 亦無不旁搜博采 一展卷瞭然。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규장총목」은 해제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당대의 선비들과 후학들이 독서할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독서생활이나 독서의 방향을 잡는데 지침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 즉, 저자사항과 내용사항과 독자에의 유용성은 모두 중요하다. 즉,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가,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와 같은 기준은 좋은 자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체크포인트인 것이다. 「규장총목」에서는 저자와 내용은 물론 독자들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해제를 하였다. 이 「규장총목」의 성격이 규장각의 개유와에 소장된 서적을 위한 해제목록이며, 연경에 간 사신들이 실물을 면밀히 보고 구입해 온 점, 수록 저록의 내용이나 저자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이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는 당시 선비들과 후학들에게 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규장총목」에 수록된 전반적인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현대의 양서(良書)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정조의 왕명으로 학산 서호수(鶴山徐浩修, 1736-1799)가 편찬한 「규장총목(奎章總目)」(1781)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1805년(순조 5)에 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총목」을 대상으로,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해 고구(考究)한 것이다. 이 질적 평가는 「규장총목」의 범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규장총목」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서적에 대한 질적 평가사항을 추출하고 범주화하고, 이를 귀납적으

로 유취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는 규장각의 중국본 서고인 개유와(皆有齋)에 소장된 서적들이다. 이들 중국본은 주로 연행(燕行)을 통해서 입수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연행사인들이 연경에 가서 직접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구입해온 만큼 이 개유와에 소장된 중국본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의 서적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규장총목』의 각 저록에 부기된 해제는 대개 책의 범례, 서문, 발문 또는 다른 해제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도서 697종의 해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은 대략 260여종(약 37%)이었다. 필자는 이 내용을 분석하여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내재적 가치, 사상적 가치, 서지적 가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내용을 다시 내용 사항, 저자 사항, 독자에의 유용성 등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 사항을 살펴보면,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훌륭한 서적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내용상 문제가 많은 서적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평을 가하였다. 선독(選讀)에만 치중할 경우 학문의 깊이와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적을 알려줌으로써 독서의 불균형을 보완하는데 힘썼다.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서적, 특정 서적에 대해 보충적인 서적, 수록된 내용의 장단점을 밝힌 서적, 일상생활에 지침이 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실용성’을 지닌 서적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 또한 책의 서지적인 평가를 해 줌으로써 선비들에게 서적 자체에 대한 안목을 갖는데 기여하였으며, 당시 유가적인 질서 속에서 이단시 했던 도가와 불가의 서적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저자 사항을 살펴보면, 훌륭한 시인이나 문장가에 대한 평가 외에, 그 인물이 지닌 품성이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경우도 있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는 물론 양웅(揚雄), 주자(周子), 양시(楊時) 등 중국에서 종주(宗主)의 역할을 하는 선비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나라 선비들이 흠모하는 도연명(陶淵明), 이

백(李白), 두보(杜甫), 구양수(歐陽脩), 소식(蘇軾) 등 중국의 대 시인과 문장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전겸익(錢謙益)에 대해서는 대개 비판에 그쳤으나, 주자를 배격하는데 전념한 청나라의 모기령(毛奇齡)에 대해서는 극한적인 혹평을 서슴지 않았다.

독자에의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 선비들이 중국서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서적의 저자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높은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규장총목」에는 개유와에 소장된 중국본들이 수록되었다. 이 목록은 우리나라 선비와 후학들에게 중국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으며, 양서(良書)라고 평가한 내용들은 당대의 선비들과 후학들에게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독서의 방향성을 잡는데 지침 역할을 하여, 그들이 보다 완속하고 폭 넓은 학문을 습득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규장총목」의 각 저록에 부기된 해제를 통해서 본 수록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양서(良書)의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문식. “정조대 경학문헌의 특징.” 『韓國學報』 100(2000). 58-83.
- 김문식. 「朱子大全」의 요약본 - 「朱文手圈」. 『문헌과 해석』 5(1998): 8-18.
- 김희영. “서명용 삼대의 공구서 편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7(1976). 580-598.
- 리상용. “「누판고」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9). 231-262.
-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

「奎章總目」저록 해제를 통한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2005. 6). 247-281.

리상용.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6. 3). 373-395.

리상용.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46집((2010. 9). 237-266.

리상용. “『해동문헌총록』 불가서적(佛家書籍)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2011.12). 471-511.

徐浩修. 『奎章總目』. 사본. 4권3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송영희 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송일기. “奎章總目考: 특히 徐命膺·徐浩修 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3.

신승운 역. 『군서표기』(홍재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2007.

이덕무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 청장관전서 1-1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1982.

정조. 『홍재전서』. 서울 :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1978.

정호훈.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57(2012). 91-12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1.

